

SK그룹, 중국 가스사업 확대

SK E&S, 차이나가스 지분 추가확보 ... M&A 주장 일축

SK E&S가 차이나가스홀딩스(China Gas Holdings)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다.

SK E&S는 중국의 도시가스기업인 차이나가스홀딩스의 지분 5%에 해당하는 주식 1200억원 상당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1월12일 발표했다.

SK E&S는 “최근 이사회에서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차이나가스홀딩스 보통주를 장내 매수하는 형태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”며 “중국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확대하고 SK그룹의 LNG(액화천연가스)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
SK E&S는 현재 차이나가스홀딩스의 지분 5.9%를 보유하고 있으며, SK그룹의 계열사인 SK가스도 2010년 유상증자를 통해 4.49%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.

추가 매입이 이루어지면 SK그룹 계열사의 지분율이 15%대로 상승해 최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대적 M&A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

하지만, SK그룹 관계자는 “현지 상황상 적대적 M&A가 불가능하며 할 의사도 없다”며 “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매입하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12>